

의사소통양식, 의사소통도 및 결혼생활만족도

Communication Style, Communication in the Family & Marital Satisfaction

충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吳京姬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 Kyung Hee Oh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및 분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mmunication styles & communication in the family and marital satisfac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aspects: 1) to find out which variables of background variables(ie, sociodemographic variables & communication styles) have effect on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the family. 2) to find 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cation in the family and marital satisfaction. 3) to find out the independent influence of background variables on marital satisfaction. In order to clarify the above problem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questionnaires with 72 items. The selected sample is composed of 365 housewives in Chong Joo city. SAS pc program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F-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ge of couples, education of couples, duration of marriage, family life cycle, number of children, income were variables to have influence on communication in the family. And communication styles were variables to have influence on communication in the family. Second, age of couple, education of couple, duration of marriage, family life cycle, number of children were variables to have influence on marital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styles

were variables to have influence on marital satisfaction. Third, there were positive 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in the family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higher communication about clothing, food, housing, skill, health, affection, money, time and institutional facilities, the higher marital satisfaction. Fourth, influential variables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were communication about clothing, affection & money and communication styles(ie, random style, morphogenic style, mophostatic style).

I. 서 론

1. 연구 목적

인간은 매일 생각하고 결정하며 실행하는 지속적인 어떤 생활양식을 형성한다. 이러한 일은 인간이 매순간 의사 소통을 통해 자신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선택하여 그 결과에 만족하기도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하는 일로서 기록된다.

인간은 생리적 조산아로 태어나 미성숙에서 성숙된 어떤 완성의 형태로 자신의 삶을 이끌고 싶은 욕구로 가득찬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욕구 충족을 위해 끊임없이 추구되는 인간의 삶은 의사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W. Littlejohn(1982)은 인간행위의 핵심은 의사소통이며 의사소통과정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개인행위, 사회구조, 정치행위, 예술창작, 언어와 문화를 비롯한 인간의 관심사를 충분히 탐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인간은 의사 소통을 통하여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랑(애정)이라는 대인적 자원을 형성하고 그러한 자원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밀착되고 결속감도 느끼게 된다. 두 타인이 만나 가정을 형성하고 부부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자녀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의 지속적인 의사 소통으로 가능하다. 즉 부부간의 의사 소통은 자녀에게 직·간접으로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 자녀에게는 성장 발달하는 동안 부모가 제1의 모델의場이므로 부모의 말과 행동은 자녀의 인성 형성과 가치 내면화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부간의 의사 소통이 원활할 때

는 서로간의 긍정적인 감정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친밀감이 발달되어 결혼 생활 만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현재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부연하면, 가족 체계에서 나타나는 의사 소통 양식과 가족간의 의사 소통도 및 결혼 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여 보다 밝고 건강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365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경우로까지 일반화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의사 소통 양식 : 가족 체계에서 한 가족원이 다른 가족원과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공유하는 행위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일정한 모양이나 격식을 말한다. 부연하면, 부부가 자기 자신이 정서적으로 몰입하고 있는 개인의 내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내용을 상호 탐색할 때 행하는 언어사용 및 관리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양식을 Deacon 과 Firebaugh(1988)가 밝힌 안정지향적체계, 변화 지향적 체계 및 무작위적 체계에서 나타나는 의사 소통 양식으로 선정하였다.

- ② 의사 소통도 : 가족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와 표준을 명확히 하고 계획을 전달하며 그 성과에 대해 만족과 불만족을 논의하는 등 가족원간의 메시지 교환의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 식, 주, 기술(기능), 체력, 애정, 금전, 시간 및 공공시설에 관한 의사소통도로 하였다.
- ③ 결혼생활 만족도 : 전반적인 결혼의 질, 즉 배우자의 역할 기대와 다른 배우자의 역할 수행 사이의 일치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결혼 생활에서 충족되어지는 욕구, 기대, 소망의 정도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 체계와 의사 소통

가족은 복잡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켜 유용한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하며 역동적으로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체이다. 가족 성원은 이러한 가족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체계에 영향을 주고 또한 체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한 체계 내에서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끼리의 관계는 전체를 구성하고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의 변화를 초래한다. 가족은 하나의 조직화되고 자연발생적 관계의 상호작용 체계로서 의사 소통을 매개로 한다.

의사 소통은 인간이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즉, 의사 소통은 의미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상호 교류 과정이다(Galbin & Brommel, 1982). 가족 체계에 대해 순환모형(Circumplex Model)을 개발하여 온 Olson, Sprenkle과 Russell (1979)은 가족 행동을 응집성, 적응성, 의사 소통의 차원으로 보고 가족 체계의 유형을 균형 가족, 중간 범위 가족 및 극단 가족으로 분류하였다.

부연하면, 의사 소통은 가족 체계의 힘의 근원이 되는 응집성, 적응성, 기능적인 면에서의 체계 내적인 역동성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응집성은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원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정서적 유대감과 한 개인이 경험하는 자율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적응성은 가족 체계가 상황적 및 발달적 문제에 대응하여 역할 관계, 역할 규칙 및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Olson & McCubbin, 1983) 효과적인 적응은 가족의 메시지 체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의미의 공유에 달려 있다.

이재연·최영희(1990, P40), 전귀연·최보가(1993)의 연구에서는 균형 가족 체계가 높은 응집성과 적응성을 보이며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인간은 가족체계내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해석 및 평가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자기 가족만의 의미를 만들어 낸다. 의사 소통을 통해서 가족원의 욕구를 정확히 아는 것과 그 요구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 등은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원을 선택 사용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가족간에 충분히 이해가 된 메시지의 교환은 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표준을 명확히 하며 다음 계획을 전달한다. 그리고 의사 소통은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체계의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적 도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관리적 체계 유형에 따라 의사 소통 양식도 다르다(Deacon & Firbaugh, 1988). 즉 변화 지향적 체계로 기능하는 가족의 의사 소통은 개방적인 상호작용과 언어적 및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관성 있고 명료하며 일치하고 솔직한 양식을 나타낸다.

이는 변화 지향적 관리 체계가 침투성있는 외부 경계와 융통적인 내부 경계 및 변화에 대해 반응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안정 지향적인 체계로 기능하는 가족의 의사 소통은 예견되고 엄격하며 의례적이고 지시적인 양식을 나타낸다. 이는 안정 지향적인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폐쇄된 외부 경계로 변화에 대해 저항적이며 투과성이 적은 경계로서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작위적 체계로 기능하는 가족의 의사 소통은 메시지가 단편적이고 예견되지 못하며 비난 회피가 강조되는 양식을 나타낸다.

Peter R.Monge(1972)는 세 가지 모델, 즉 기계적

모델(Mechanistic model)과 체계적 모델(Systems model) 그리고 조직적 모델(Organic model)에 따른 인간의 의사 소통을 연구하였다. 부연하면, 기계적 모델(mechanistic model)은 인간의 행동을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길 항력의 물리적인 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지만, 인간의 삶의 성장적인 면이 고려되지 않고 의사 소통 체계의 논리와 물리적 체계의 논리가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인간을 체계 속에서 능동적이기보다 피동적인 요소로 취급하는 문제점이 있다. 조직적 모델(organic model)은 기계적 모델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성장 및 발달 등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나, 주요한 의사 소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과 조직적 실체의 논리는 의사 소통 체계의 논리와 같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체계적 모델(systematic model)은 전체는 부분들의 합보다는 크지만 부분들로 이루어진 실체보다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있고 상호작용은 체계 작동의 기본이며 전체론적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리고 체계는 에너지와 정보의 입수에 대해 개방적이며 체계의 새로운 상태로 탄생될 수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개방적이다. 체계는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나 구조적 유지보다 오히려 구조적 변화에 역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의사 소통은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지속적이며 의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하며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자신의 세계의 혼돈을 없애 주고 모든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서 인간 자신을 유용하게 만든다. 가족 내에는 상호작용에 관한 의사 소통 규칙이 존재하며 이는 가족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기여하고 자녀의 사회화와 교육에 도움을 준다. 규칙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행동을 규정짓고 제한하는 관계에 대한 합의이다(이재연·최영희, 1990 P89). 가족의 규칙은 가족 성원들의 타협에 의한 것에서부터 반복으로 인해 생기는 것까지 다양하며 가족 내의 응집과 적응에 한계를 설정한다. 또한 규칙은 가족 성원의 발달과 상황에 따라 변하고 문화적 및 인종적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 의사 소통은 대인적이거나 사회 체계이거나 간에 두 체계의 공동의 경계인 공유 영역

을 갖는데 체계간의 공유 영역은 두 체계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존재한다. 그러나 체계간의 의사 소통에 대한 방해적 요소, 즉 기존의 규칙, 물리적 조건, 불신감 등이 의사 소통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의 의사 소통은 미래의 관리 과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체계의 항상성 유지 및 가족 성원간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며 가정관리 형태에 영향을 주는 역동적인 힘이다(임정빈 외 4인, 1994, P151). 대체로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이 익숙한 방식으로 의사 소통을 하는데 대인관계 상황을 다루는 그 사람이 가진 특정한 방식을 스타일이라고 한다(Gail E.M. & Michele T.M. 1985). 가족 치료 학자 V. Satir(1976)는 의사 소통 스타일을 ① 계산적 혹은 따지는 스타일 ② 책망과 공격적인 스타일 ③ 저자세나 어물쩍한 스타일 ④ 주의 산만이나 조종하는 스타일 ⑤ 솔직한 혹은 분명한 스타일로 구분한 바 있다. Hawkins, J.A.등(1980)은 언어화 정도와 감정 표출 정도에 따라 의사 소통 양식을 차단형(Convictional Style), 억제형(Controlling Style), 분석형(Speculative style), 친숙형(Contactful style)으로 분류하였다. 원효중(1983)의 연구에서는 차단형과 억제형을 많이 사용하면 의사 소통 불안 의식이 높고 친숙형의 의사 소통 양식을 보인 경우, 의사 소통 불안 의식이 낮았다. 또한 부부간의 의사 소통 양식이 상호 일치하는 경우, 의사 소통 불안 의식이 낮았다. Norton(1983)은 부부간의 의사 소통 양식을 긴장 이완형(relaxed), 개방형(open), 표현형(aimated), 감정이입형(attentive), 친밀형(friendly), 지배형(dominant), 논쟁형(contentious)으로 분류하였다. 송성자(1985)는 부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 소통 유형으로 권위 지향형, 불성실형, 희생 지향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Beaubien(1970)는 청소년과 의사 소통 유형을 개방형, 차단형, 자녀 차단-부모 개방형 및 부모 차단-자녀 개방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유형 분류에 근거한 연구(이정우·김규원 1989; 박은주·김경신 1995)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 소통 유형중 개방형이 가장 많고 다음이 차단형이고, 자녀 차단-부모 개방형, 부모 차단-자녀 개방형의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가 모두

양방 개방형일수록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2. 의사 소통과 결혼 생활 만족도

의사 소통은 가족의 활력의 근원으로서 의사 소통이 끝나면 체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 소통을 할 때는 타인의 마음속에 의미(Meaning)를 낳는 메시지를 사용한다. 효율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송신자가 명백하고 일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수신자는 전체 메시지를 받거나 경험해야 하며 메시지로부터 결론을 이해하고 증명하며 끌어내야 하고 과거 경험에 관련된 메시지가거나 일반화된 것이어야 하며 메시지에 대해 응답 혹은 반응해야 한다. 인간관계 측면에서 의사 소통은 의사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감정을 이입시키는 행위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의사 소통 기술은 인간관계를 기능화시키는 지침이라할 수 있다. 기능적인 의사 소통을 하는 부부는 의사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므로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듣고 말하는 태도가 성의 있고 예의바르며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표현한다. 부부의 의사 소통은 부모의 의사 소통과 가족구성원간의 모든 의사 소통의 기준을 설정한다(Virginia Satir 1967).

반면, 부부가 내적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가족 체계의 문제로 의사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 가정은 병들게 되고 부부 체계의 경계가 와해되며 부부가 서로를 적대시하여 자녀와 협력 관계를 맺게 된다든지 혹은 자녀의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여 병적인 자녀를 만들게 된다든지 자녀가 성인인이 되어도 모든 문제를 의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역기능적인 의사 소통 관계가 계속 될 수 있다. 이정순의 연구(1982)에서는 결혼 생활이 만족이 클수록 의사 소통의 일치도가 높았고 이해도도 높았다. 박경자의 연구(1981)에서는 결혼 생활에 대한 후회 정도와 의사 소통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의사소통도가 높은 가정이 결혼에 대한 후회 빈도가 낮았다. 또한 이혼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 주

부와 의사 소통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주부의 가정 생활 만족도가 낮았다. Lewis 와 Spanier (1979 P269)는 결혼 생활의 질은 현명한 판단, 적절한 의사 소통, 결혼 생활 행복감,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감과 연관되어 있으며 결혼의 안정성과 적절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부부간에 응집과 적응이 높을수록 의사 소통이 효율적이고(김수연·김득성, 1993) 의사 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부의 공동여가 활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높다(김화자·윤종희 1991).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결혼안정성이 증가한다(전춘애·박성연 1993; 최연실 1987).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시가관계나 경제적인면에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결혼 불안정성은 감소한다(김선영 1989). Blood 와 Wolfe(1960 P 11)는 부부간의 개방적인 의사 소통은 부부간의 이해, 적응, 만족을 더 촉진시키고 부부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부간의 태도라고 하였다. 결혼관계에서 대화의 단절은 부부간의 갈등 상황을 유도하며(Davidson 1983) 부부간에 자기 개방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적응도가 높다(전길량·김태현 1988). 부부가 자기 개방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다(정은미·김명자 1996). 또한 부부간의 의사 소통 이해도와 결혼 만족도 간에는 정적 상관 관계가 있다(송말희·이정우 1986). 취업 부부가정인 경우 부부간의 대화 만족, 공동 여가 활동 및 성생활 만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최규련, 1993).

3. 의사 소통과 결혼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변인

의사 소통과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변인은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인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부 연령

임정빈 등(1995)은 대체로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의사 소통 효율성이 낮다고 하였고, 생활 만족도는 30대 주부가 가장 높고 50세 이상이 가장 낮았다고 하였다. 김경숙·이정우(1993)는 가족간 의사 소

통이 잘 될 수록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이 높으며 남편의 연령이 40대인 가정의 경우 주부의 관리능력이 가장 높고 50대일 때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남편 연령이 40대인 가정의 경우 가족간 의사 소통이 50대인 가정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정우·이정숙(1992)은 주부 연령이 어릴수록 더 효율적인 의사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반면 박경자(1981)·이정순(1982)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의사 소통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송말희·이정우(1986)는 주부 연령 20대가 의사 소통 이해도가 가장 높고 30대, 50대, 40대순으로 높았다고 하였다. 전춘애·박성연(1993)은 주부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생활 만족도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2) 부부 교육 수준

김선영의 연구(1989)에서는 주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불안정성은 높고 시가 관계 만족도도 낮았다. 임정빈 등(1995)은 주부의 교육 수준이 국졸 이하인 가정보다 고졸인 가정의 의사소통도가 더 높았고 가정 생활 만족도는 국졸 이하 가정이 중졸 이상 가정보다 낮았다고 하였다. 이정우·이정숙(1992)은 주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관리 행동 점수가 높고 가정관리 행동은 의사소통도와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주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김경숙·이정우(1993)의 연구에서는 국졸 주부보다 전문대 및 대학원 졸의 고학력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전문대 및 대학원 졸의 고학력 주부의 가정에서 가족간의 의사 소통이 더 원활히 이루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김화자·윤종희(1991)의 연구에서는 주부 학력이 중졸 이하인 가정이 대졸 이상인 가정보다 결혼 만족도가 높았고 반면, 주부 학력에 따라 의사 소통의 효율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전춘애·박성연(1986)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송말희·이정우(1986)는 주부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 소통 이해도 점수가 높으며 결혼생활 만족도도

높다고 하였다.

3) 결혼지속년수

송말희, 이정우(1986)는 결혼지속년수 5년 이하인 가정이 의사소통 이해도가 가장 낮고 11년-15년인 가정이 가장 높았고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결혼만족도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전춘애·박성연(1993)은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결혼만족도는 감소되며 반면 김화자·윤종희(1991)는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결혼생활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정우·이정숙(1992)은 결혼지속년수 15년미만의 가정이 20년이상인 가정보다 가족 내 의사 소통이 더 원활하다고 하였고, 김선영(1989)의 연구에서는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결혼 불안정성은 감소하고 시가 관계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4) 자녀수

송말희·이정우(1986)는 무자녀의 가정이 의사 소통 이해도가 가장 높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이해도는 낮아지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전춘애·박성연(1993)은 자녀가 있을수록 결혼 생활 만족도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김화자·윤종희(1991), 김경숙·이정우(1993)의 연구에서는 자녀수에 따라 결혼 생활 만족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정숙·이정우의 연구(1992)에서는 자녀 2명을 둔 가정이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보다 가족 내 의사소통도가 더 원활하였다. 임정빈 등(1995)의 연구에서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의사 소통 효율성과 가정 생활 만족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5) 소득

임정빈 등(1995)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가정이 501만원 이상인 가정보다 가정 생활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고 이정우·이정숙(1992)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인 가정이 中下와 下인 가정보다 의사소통도가 더 높았다고 하였다. 김경숙·이정우(1993)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김화자·윤종희(1991)의 연구에서는 소득에 따라 의사 소통 효율성은 차이가 없었으나 59만원 미만의

가정보다 180만원 이상의 가정이 결혼 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다. 전춘애, 박성연(1993)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와 결혼 안정성도 높았다. 송말희·이정우(1986)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이해도가 높으며 결혼 생활 만족도도 높다고 하였다. 이옥진의 연구(1982)에서는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생활 만족도도 커진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처리

본 연구는 청주시에서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6월중순부터 하순까지 370부의 설문지를 면담원을 통해 배포 및 수거하였다. 이중 기재 미비인 설문지를 제외한 365부를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 처리는 sas pc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백분율, F-test, Duncan's 사후 검증, Pearson's 상관 계수, Cronbach- α , mean,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 도구

1) 의사소통 양식의 척도

본 연구에 사용한 의사소통 양식의 척도는 Beaubien sister clare(1970)*가 사용했던 것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무작위형 11문항 변화 지향형 9문항 안

정 지향형 9문항을 5점척도로 재구성하였다. 5점에 가까울수록 무작위형과 안정 지향형의 성향이 강하며 반면 변화 지향성은 이와 반대이다. 각 양식별 신뢰도는 0.89로서 매우 높은 편이었다.

2) 의사소통도의 척도

본 연구에 사용한 의사소통도의 척도는 본인이 작성하여 논문(1993)에서 신뢰도를 입증한바 있던 척도를 사용하였다. 9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척도로 5점에 가까울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표 1>에 제시된바와 같이 매우 높은 편이다.

3) 결혼 생활 만족도의 척도

Roach, Frazier & Bowden(1981)*이 사용한 척도를 근거로 하여 수정 보완한 후 사용하였는데 5점 Likert 척도의 총18문항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결혼생활 만족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0.88로서 매우 높은 편이었다.

3. 연구문제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가족 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양식과 의사소통도 및 결혼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 1> 변인의 신뢰도

변인	cronbach - α	변인	cronbach - α	변인	cronbach - α	변인	cronbach - α
무작위형	0.89	의생활	0.90	기술 (기능)	0.88	금전	0.89
변화지향형	0.89	식생활	0.89	체력 (건강)	0.89	시간	0.89
안정지향형	0.89	주생활	0.89	애정	0.88	공공시설	0.90
결혼생활 만족도	0.88	-	-	-	-	-	-

(연구문제1) 배경 변인(부부연령, 부부학력, 결혼지속년수, 가정생활주기, 자녀수, 소득, 의사소통양식)에 따라 의사소통도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1) 배경 변인에 따라 의사소통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2) 배경 변인에 따라 결혼 생활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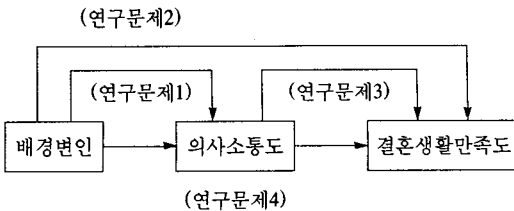
(가설2) 배경 변인에 따라 결혼 생활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3) 의사소통도와 결혼 생활 만족도는 관계가 있을 것인가?

(가설3) 의사소통도와 결혼 생활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4) 결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제 변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30·40대 주부가 69.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졸이 43.8% 대졸 이상도 31.0%로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다. 남편의 연령은 39세 이하가 46.3%, 40대가 31.2%, 50세 이상이 22.5%로 나타났고 교육 수준은 고졸이 35.3%, 대졸 이상이 51.2%로 높은 편이었다. 결혼 지속년수는 9년이하가 37.8%로 가장 많았고 20-29년이 28.8%, 10-19년이 27.4%를 나타내었고 30년 이상의 가정은

6.0%였다. 소득은 부부의 총수입을 합산한 것으로 150만원 이하의 가정이 3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51만원-200만원의 가정으로 24.4%를 나타내었다. 그 외에 200만원 이상의 가정이 40.5%이었다. 자녀는 2명을 둔 가정이 45.8%로 가장 많았고 1명이나 3명을 둔 가정의 분포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무자녀인 가정도 10.4%였고 4명이 상인 가정은 8.5%였다. 가정 생활 주기는 Biglow가 분류한 7단계로 구분하여 본 결과 첫 자녀 출생과 초등교육기에 있는 가정이 23.0%와 18.4%로 나타나고 있고 중·고등교육기 가정(15.6%)과 대학교육기 가정(16.4%)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학업기에 있는 가정은 10.7%, 회복기 및 은퇴기 가정이 각각 8.8%와 7.1%를 나타내었다.

2. 의사 소통

1) 일반적인 경향

청주시 가정의 부부간에 나타나는 의사 소통의 성향은 변화 지향적 가족 체계에서의 의사소통양식(Mean=24.3)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무작위적 가족 체계와 안정 지향적 가족 체계에서의 의사소통양식(Mean=26.7; mean=19.3)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또한 청주시 가정의 가족간의 의사소통정도는 의생활(Mean=10.5), 애정(Mean=10.3), 금전(Mean=10.3), 시간(Mean=7.2)에 관한 의사소통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반면 주생활(Mean=9.8)에 관한 의사소통도는 낮은 편이었다. 그밖에 식생활(Mean=6.2), 기능(Mean=6.8), 체력(Mean=6.7), 공공시설(Mean=6.9)에 관한 의사 소통은 중간 정도였다. 한편 청주시 주부의 결혼 생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Mean=60.0)으로 결혼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배경 변인에 따른 의사 소통도

가) 사회 인구학적 변인별 의사 소통도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의사소통도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F-test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부부연령, 부부학력, 결혼지속년수, 가정생활주기,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변 인		N(%)	변 인		N(%)	변 인		N (%)
주부 연령	29세이하	68(18.6)	남편 연령	39세이하	169(46.3)	주부 교육	중졸이하	92(25.2)
	30-39세	138(37.8)		40-49세	114(31.2)		고 졸	160(43.8)
	40-49세	117(32.1)		50세이상	82(22.5)		대졸이상	113(31.0)
	50세이상	42(11.5)						
결혼 지속 년수	9년이하	138(37.8)	자녀 수	없다	38(10.4)	소득	150만원이하	128(35.1)
	10-19년	100(27.4)		1명	65(17.8)		151만-200만원	89(24.4)
	20-29년	105(28.8)		2명	167(45.8)		201만-250만원	52(14.2)
	30년이상	22(6.0)		3명	64(17.5)		251만-300만원	59(16.2)
				4명이상	31(8.5)		301만원이상	37(10.1)
가정 생활 주기	1단계	39(10.7)	남편 학력	중졸이하	49(13.4)			
	2단계	84(23.0)		고졸	129(35.3)			
	3단계	67(18.4)		대졸이상	187(51.2)			
	4단계	57(15.6)						
	5단계	60(16.4)						
	6단계	32(8.8)						
	7단계	26(7.1)						

자녀수 및 소득에 따라 의사소통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① 부부 연령

주부 연령에 따라 식생활, 애정, 금전, 시간, 공공 시설에 대한 의사소통도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29세이하의 주부보다 30세이상의 주부가 식생활, 공공시설에 대한 의사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애정과 금전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30세이상의 주부가 29세이하의 주부보다도 더 높았다. 주부 연령에 따른 시간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Duncan의 사후 검증 결과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편 연령에 따라 애정, 금전, 시간에 대한 의사소통도가 차이를 보였다. 즉, 39세이하의 가정이 40세 이상의 가정보다 애정, 금전, 시간에 대한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젊은 부부 가정의 경우 다른 연령 대의 가정보다 의사 소통이 더욱 원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선행 연구(임정빈 등 1995; 이정우·이정숙, 1992;

송말희·이정우, 1986)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② 부부 학력

주부의 교육 수준에 따라 의, 식, 주, 기능, 체력, 애정, 금전, 시간에 대한 의사소통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주부가 중졸 이하인 가정이 의사소통도가 가장 낮았고 대졸 이상인 가정이 의사소통도가 가장 높았다. 주부의 교육 수준은 가정관리자인 주부의 지적 능력으로서 자원 활용 및 창조성과 깊은 연관이 있고(오경희, 1993) 관리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의, 식, 주, 기능, 체력, 애정, 금전, 시간에 대한 의사 소통을 가족간에 원활히 하면서 자원을 적시 적소에 배분 및 활용하여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따라서 주부 즉 가정관리자의 지적 향상을 위한 꾸준한 자기 관리의 노력은 가정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초적인 일일 것이다.

한편, 남편의 학력에 따라 주, 애정, 시간에 대한 의사소통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대졸 이상인 가정이 고졸 이하인 가정보다 주, 애정, 시간에

대한 의사 소통을 더 원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임정빈 등 1995; 이정우·이정숙, 1992; 송말희·이정우, 1986)와 비슷한 결과이다.

③ 결혼 지속년수

결혼 지속년수에 따라 기능, 애정, 금전, 시간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결혼 지속년수 9년이하인 가정이 20년이상인 가정보다 애정 및 금전에 대한 의사소통도가 더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고 10-19년인 가정이 20년이 상인 가정보다 기능에 대한 의사소통도가 더 높았다. 시간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결혼 지속년수 20-29년인 가정이 가장 낮았다. 이는 이정우·이정숙(1992)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④ 가정 생활 주기

가정 생활 주기에 따라 애정, 금전, 시간 및 공공시설에 대한 의사소통도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애정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확립기가 가장 높고 회복기에 가장 낮았다. 금전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확립기에 가장 높았고 대학교육기에 가장 낮았다. 시간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확립기와 초등교육기에 가장 높고 회복기에 가장 낮았다. 공공시설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초등교육기와 은퇴기에 가장 높았고 확립기와 회복기에 가장 낮았다.

⑤ 자녀수

자녀수에 따라 애정, 금전, 시간에 대한 의사소통도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애정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무자녀인 가정이 가장 높고 4명이상인 가정이 가장 낮았다. 금전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무자녀인 가정이 가장 높고 1명이상인 가정이 가장 낮았다. 시간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자녀가 1명이하인 가정이 가장 높고 1명이상인 가정이 가장 높았고 3명이상인 가정이 가장 낮았다. 이는 송말희·이정우(1986), 전춘애·박성연(199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⑥ 소득

소득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150만원인 가정과 301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정이 공공시설에 대한 의사소통도가 높았고 251만원-300만원인 가정이 공공시설에 대

한 의사소통도가 가장 낮았다.

나) 의사소통양식이 의사소통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 소통 양식이 의사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참조) 그 결과, 의사소통 양식중 변화 지향형의 의사 소통 양식이 각 하위 영역별로 의사소통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그밖에 기능과 시간에 대한 의사소통도에 안정 지향형 의사소통양식이 영향을 미쳤으며 애정에 대한 의사소통도에 무작위형 의사소통양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연하면, 가족체계내에서 변화 지향적 의사소통양식을 나타낼수록 각 하위 영역별 의사소통도가 높아진다. 즉, 변화 지향적 체계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양식은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고 명료하며 솔직하다. 또한 가족 체계가 융통성 있는 내부 경계와 침투 가능한 외부 경계의 특성을 나타내므로 가족성원간에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성원간에 의사소통도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능과 시간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가족 체계내에서 변화 지향적 의사 소통 양식뿐 아니라 안정 지향적 의사소통양식을 나타낼수록 의사소통도가 높아진다. 즉 변화 지향적 체계에서 나타나는 의사 소통 양식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 성원간에 의사소통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하였고, 반면 안정 지향적 체계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양식, 즉 외부 경계가 폐쇄적이며 변화에 저항적이고 투과성이 적은 경계의 특성을 지닌 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사 소통은 예견되고 엄격하며 의례적이고 지시적인 양식을 보이므로 기능과 시간에 대한 의사 소통은 변화 지향적 체계와 안정 지향적 체계 속에서 원활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애정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가족 체계 내에서 변화 지향적인 의사소통 양식뿐 아니라 무작위형 의사소통양식을 나타낼수록 의사소통도가 높아진다. 즉, 무작위적 체계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양식은 메시지가 단편적이고 예견되지 못하여 비난의 회피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변화 지향적 체계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양식은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고 명료

하며 솔직한 특성이 있으므로 애정에 대한 의사 소통은 이 두 가지 체계 속에서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배경 변인에 따라 의사소통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은 긍정되었다.

3. 결혼생활만족

1) 일반적인 경향

청주시 주부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60.0으로 중간값 54.0보다 크므로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표 3> 참조)

2) 배경 변인에 따른 결혼생활 만족도

가) 사회 인구학적 변인별 결혼생활 만족도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생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F-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부연령, 부부학력, 결혼생활지속년수, 자녀수,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결혼생활 만족도는 차이를 보였다.

① 부부 연령

주부 연령이 29세이하인 가정과 30세이상인 가정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29세이하 인 가정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30세이상인 가정보다 더 높

았다. 또한 남편 연령 39세이하인 가정이 40세이상인 가정보다 결혼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는 결혼 초기, 즉 신혼 생활 때 결혼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전춘애·박성연(1993)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다.

② 부부 학력

부부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정이 고졸 이하의 가정보다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지적 능력이 발달되어 부부간의 대화의 내용이나 방법을 개발 및 창조하는 일이 활발할 것이므로 부부간의 역할 기대나 역할 수행에 일치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결혼 생활의 만족감은 증대될 것이며 결혼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이는 전춘애·박성연(1993),송말희·이정우(198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③ 결혼 지속년수

결혼 지속년수가 9년이하인 가정이 10년이상인 가정보다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다. 평균을 비교해 보면, 9년이하인 경우 만족도가 높다가 10년-29년인 경우에 낮았다가 30년이상인 경우 다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송말희·이정우(1986), 전춘애·박성연(1993)의 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④ 가정생활 주기

확립기의 가정이 결혼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회복기의 가정이 가장 낮았다. 즉, 확립기때는 신혼 초기로서 자녀 출산 전이고 서로에게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이므로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이며 회복기는 자녀가 부모의 슬하를 떠나는 빈둥지같은 시기이므로 부부가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데 자녀를 위한 지출이 많았던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는 얻을 수 있지만 역할 상실감과 직장으로부터의 은퇴준비등 많은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되어 결혼 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된다.

⑤ 자녀수

무자녀 가정이나 자녀수가 1명이하인 가정이 자녀 수 2명이상인 가정보다 결혼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전춘애·박성연(1993)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다. 자녀는 부부가 관리해야 할 인적

<표 3> 각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인		Min.	Max.	Mean.	St.D
의사 소통양식	무작위형	7.0	35.0	26.7	4.7
	변화지향형	8.0	35.0	24.3	5.0
	안정지향형	5.0	25.0	19.3	3.8
의사 소통도	의 생활	3.0	15.0	10.5	2.0
	식 생활	2.0	10.0	6.2	1.6
	주 생활	3.0	15.0	9.8	2.2
	기 능	2.0	10.0	6.8	1.6
	체 력	2.0	10.0	6.7	1.5
	애 정	3.0	15.0	10.3	2.5
	금 전	3.0	15.0	10.3	2.5
	시 간	2.0	10.0	7.2	1.6
	공 공 시설	2.0	10.0	6.9	1.8
	결혼생활 만족도	26.0	82.0	60.2	10.2

〈표 4〉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사 소통도 및 결혼생활 만족도

변인	항 목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기능			체력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주부 연령	29세이하	10.69			5.83		B	10.04			6.91			6.88						
	30-39세	10.62	0.34		6.48	*	A	9.82	0.45		7.05	1.73		6.72	0.59					
	40-49세	10.41		6.29	3.01	B.A	9.67	6.67		6.59										
	50세이상	10.64		5.92		B.A	9.97	6.57		6.85										
중졸이하	10.03	B		5.84		B	9.35	B		6.33	B		6.40	*		B				
주부 교육	고 졸	10.61	**	A	6.30	*	A	9.76	**	B.A	6.90	**	A	6.73	3.61	B.A				
	대졸이상	10.94	5.03	A	6.46	3.88	A	10.32	5.00	A	7.05	5.54	A	6.98		A				
	39세이하	10.63			6.19		B.A	9.96			6.89			6.82						
남편 연령	40-49세	10.59	0.27		6.48	2.30	A	9.73	0.53		6.91	2.12		6.67	0.62					
	50세이상	10.45		5.98		B	9.70	6.48		6.61										
	중졸이하	10.34				5.87		B		9.12			B	6.25			B	6.65		
남편 학력	고 졸	10.40	1.32		6.15	2.18	B.A	9.72	*	B.A	6.73	*	B.A	6.58	1.11					
	대졸이상	10.74		6.39		A	10.09	3.96	A	6.99	A	6.84	4.16	A		6.84				
	9년이하	10.70				6.30			9.94			6.87		B.A		6.79				
결혼 지속 년수	10-19년	10.53	0.31		6.28	0.60		9.96	1.32		7.18	**	A	6.87	1.61					
	20-29년	10.46		6.20			9.48	6.42		B	6.45									
	30년이상	10.45		5.81			10.22	6.50		B	6.95									
	1단계	11.10					6.30				10.74			7.25			A	7.20		A
가정 생활 주기	2단계	10.62			6.20			9.44			6.71		B.A	6.67		B.A				
	3단계	10.38			6.37			10.10			7.13		B.A	6.77		B.A				
	4단계	10.28	1.13		6.26	0.31		9.71	2.05		6.91	2.00		B.A	6.73	1.34	B.A			
	5단계	10.31		6.30			9.73	6.40		B	6.41		B							
	6단계	11.03		6.00			9.35	6.41		B	6.50		B	6.50	B.A					
	7단계	10.73		6.00			10.11	6.76		B.A	7.03		B.A	7.03	B.A					
	없다	11.16					6.29				10.65			A	7.34			A	7.28	
1명	10.76				6.16					9.86			B.A	6.75			BA	6.78		B.A
2명	10.35	1.56			6.21		0.22			9.53	2.20			B	6.75		1.22		BA	6.64
3명	10.45		6.39		10.00	6.77		BA	6.51	B		6.51	B							
4명이상	10.87		6.12		10.53	6.61		B	6.80	B		6.80	B.A							
150만원이하	10.62				6.21				9.84				6.55			6.82				
소득	151만-200만	10.51			6.16			10.04			7.01			6.74						
	201만-250만	10.36	0.35		6.28	0.28		9.69	0.35		6.94	1.24		6.55	0.32					
	251만-300만	10.54		6.20			9.76	6.89		6.64										
	301만원이상	10.86		6.48			9.61	6.83		6.75										

〈표 4〉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사 소통도 및 결혼생활 만족도

변인	항 목	애정			금전			시간			공공시설			결혼생활만족도		
		M	F	D	M	F	D	M	F	D	M	F	D	M	F	D
주부 연령	29세이하	11.38		A	11.35		A	7.43			6.43		B	64.77		A
	30-39세	10.86	**	B.A	10.39	***	B	7.45	*		7.26	*	A	59.83	***	B
	40-49세	10.21	3.98	B	9.65	6.94	B	6.95	2.68		6.92	3.04	B.A	57.93	6.76	B
	50세이상	10.54		B	10.26		B	6.97			7.00		B.A	59.00		B
주부 교육	중졸이하	10.05		B	9.68		B	6.72		B	6.95			56.89		B
	고 졸	10.59	***	B	10.44	*	A	7.33	**	A	7.05	0.34		59.28	***	B
	대졸이상	11.44	10.04	A	10.65	4.17	A	7.50	6.56	A	6.86			63.64	12.12	A
남편 연령	39세이하	11.13		A	10.86		A	7.47		A	7.01			62.17		A
	40-49세	10.39	**	B	9.86	***	B	7.15	*	B.A	6.97	0.15		57.90	***	B
	50세이상	10.30	5.20	B	9.81	7.83	B	6.85	4.22	B	6.87			58.51	7.13	B
남편 학력	중졸이하	9.85		B	9.57		B	6.77		B	7.12			56.68		B
	고 졸	10.43	***	B	10.34	2.62	A	7.01	**	B	6.98	0.22		57.95	***	B
	대졸이상	11.14	7.85	A	10.48		A	7.50	5.91	A	6.92			62.34	10.28	A
결혼 지속 년수	9년이하	11.31		A	10.95		A	7.48		A	6.86			62.43		A
	10-19년	10.62	***	B.A	10.29	***	A	7.53	***	A	7.27			59.80	***	B.A
	20-29년	10.13	5.95	B	9.58	6.37	B	6.62	7.44	B	6.74	1.91		56.97	5.74	B
	30년이상	10.18		B	9.95		B	7.22		A	7.40			60.35		B.A
가정 생활 주기	1단계	11.87		A	11.73		A	7.68		A	6.23		B	65.57		A
	2단계	11.11		B.A	10.90		B.A	7.39		B.A	6.92		B.A	62.44		B.A
	3단계	10.67		B.C	10.16		B.C	7.50		A	7.67		A	59.25		B.C
	4단계	10.45	**	B.C	9.93	***	B.C	7.35	*	B.A	6.87	**	B.A	57.82	***	B.C
	5단계	10.35	3.13	B.C	9.36	4.91	C	6.75	2.83	B.C	6.85	3.42	B.A	58.16	4.31	B.C
	6단계	9.87		C	9.90		B.C	6.59		C	6.46		B	56.41		C
	7단계	10.46		B.C	10.26		B.C	7.03		B.A.C	7.50		A	59.69		B.C
자녀 수	없다	11.93		A	11.75		A	7.75		A	6.37			65.88		A
	1명	11.27	**	B.A	10.67		B	7.56		A	7.18			63.09		A
	2명	10.47	4.46	B.C	10.12	***	B	7.18	*	B.A	7.14	1.86		58.86	***	B
	3명	10.37		B.C	9.67	4.87	B	6.90	3.79	B	6.82			57.51	6.41	B
	4명이상	10.29		C	10.19		B	6.87		B	6.61			58.24		B
소득	150만원이하	10.52			10.63			7.16			7.33		A	57.88		
	151만-200만	10.77			10.21			7.39			6.93		B.A	60.96		
	201만-250만	10.81	0.33		10.34	0.96		7.21	0.44		6.75	*2.94	B.A	61.37	2.12	
	251만-300만	10.78			9.98			7.08			6.37		B	61.20		
	301만원이상	10.91			9.97			7.35			7.10		A	61.37		

*P<.05 **P<.01 ***P<.001

자원이므로 부부가 세웠던 장·단기 계획도 자녀출현이후 변경해서 수행해야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므로 부부간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영향 요인일 수 있다. 따라서 알맞은 수의 자녀를 낳아 결혼생활 만족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⑥ 소득

소득에 따라 결혼생활 만족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소득 및 경제 수준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춘애·박성연(1993), 송말희·이정우(1986), 이옥진(1982)의 연구 결과에 상반되는 결과이다.

나) 의사 소통 양식이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 체계속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양식이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그 결과 무작위형($\beta=0.20$), 변화지향형($\beta=0.50$), 안정지향형($\beta=0.13$)의 의사 소통 양식이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59%의 설

명력을 나타내었다.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볼 때 변화 지향형, 무작위형, 안정 지향형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언하면 가족 체계 내에서 무작위적인 의사 소통 양식을 나타낼수록 또한 변화 지향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나타낼수록 그리고 안정 지향적인 의사 소통 양식을 나타낼수록 결혼 생활만족도는 증가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 가족 체계 어떤 의사 소통 양식을 나타내든지 가족간의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면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다시말 하면, 가족 체계에 의, 식, 주, 기능, 체력, 애정, 금전, 시간, 공공시설의 자원이 투입되어 관리 과정이 작동될 때 가족간에 이에 대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의사소통 정도는 가족 체계가 처한 상황에 맞는 체계의 특성 속에서 드러나는 의사 소통 양식을 통해 나타나고 관리 과정이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배경 변인에 따라 결혼 생활만족도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가설2)는 금

〈표 5〉 의사 소통 양식이 의사소통도 및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value	F-value	R ²	adj R ²	D W	상수
의생활	변화지향형	0.10	***0.25	***21.10	0.06	0.06	2.03	7.95
식생활	변화지향형	0.08	***0.27	***24.70	0.07	0.07	1.98	4.07
주생활	변화지향형	0.18	***0.42	***65.71	0.17	0.17	1.94	5.43
기능	변화지향형	0.12	***0.37	***45.05	0.22	0.22	1.99	2.58
	안정지향형	0.06	* 0.13					
체력	변화지향형	0.14	***0.47	***88.20	0.22	0.22	1.83	3.10
애정	무작위형	0.10	***0.21	***88.14	0.36	0.36	2.00	3.12
	변화지향형	0.19	***0.44					
금전	변화지향형	0.20	***0.40	***60.15	0.16	0.16	1.89	5.44
시간	변화지향형	0.11	***0.35	***43.39	0.22	0.22	2.04	3.13
	안정지향형	0.06	* 0.15					
공공시설	변화지향형	0.08	***0.23	***17.99	0.05	0.05	1.62	4.82
결혼생활 만족도	무작위형	0.43	**0.20	***145.96	0.59	0.58	2.02	16.62
	변화지향형	1.01	***0.50					
	안정지향형	0.35	*0.13					

*P<.05 **P<.01 ***P<.001

정되었다.

4. 의사소통도와 결혼생활 만족도의 관계

의사소통도와 결혼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한 결과(〈표 6〉 참조)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 식, 주, 체력, 애정, 금전, 시간 및 공공시설에 대한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결혼생활 만족도도 높아진다.

특히, 의사소통도의 하위영역중 애정($r=0.60$ $P<.001$)에 대한 의사소통도가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족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으로 대인적자원인 애정이 생겨 결혼 생활 만족도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며 가족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은 의사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상의 결과는 의사소통도와 결혼 생활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3)을 긍정하는 결과이다.

5.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제 변인의 영향력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생활($\beta=0.10$), 애정($\beta=0.15$), 금전($\beta=0.14$)에 대한 의사소통도와 무작위형($\beta=0.17$), 변화지향형($\beta=0.35$), 안정지향형($\beta=0.12$)의 의사소통양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결혼생활 만족도의 전체변량중 66%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의, 애정, 및 금전에 대한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가족체계 속에서 의사소통 양식(무작위형, 변화지향형 및 안정 지향형)이 나타날수록 결혼 생활 만족도는 높아진다. 또한 의생활에 대한 의사소통도에는 주부 연령($\beta=0.12$), 주부 학력($\beta=0.17$), 변화지향형($\beta=0.22$)의 의사소통양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들 변인은 의생활에 대한 의사소통도의 전체변량중 8%를 설명하고 있다. 즉, 주부의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변화지향형 의사소통 양식을 보일수록 의생활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높아진다.

애정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남편 학력($\beta=0.12$), 무작형($\beta=0.20$)과 변화 지향형($\beta=0.41$)의 의사 소통 양

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 변인들은 애정에 대한 의사소통도의 전체 변량중 37%를 설명하고 있다. 즉,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무작위형과 변화 지향형의 의사소통을 나타낼수록 애정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높아진다. 금전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결혼지속년수($\beta=-0.16$), 소득($\beta=-0.16$) 그리고 변화 지향형($\beta=0.39$)의 의사 소통 양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금전에 대한 의사 소통의 전체 변량중 21%를 설명하고 있다. 즉, 결혼년수가 짧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변화 지향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나타낼수록 금전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높아진다. 부인하면 주부의 교육 수준과 연령은 의생활에 대한 의사소통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혼 생활 만족도에 기여하는 간접 영향 변인이었다. 또한 소득, 결혼지속년수, 변화 지향형 의사 소통 양식은 금전에 대한 의사 소통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혼 생활 만족도에 기여하는 간접 영향 변인이었다.

남편의 교육 수준과 무작위형 및 변화 지향형의 의사 소통은 애정에 관한 의사소통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혼 생활만족도에 기여하는 간접 영향 변인이었고 한편, 무작위형, 변화 지향형 및 안정 지향형의 의사 소통 양식은 결혼 생활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가족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사 소통 양식은 결혼 생활 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결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인과적 및 비인과적 효과로 분해하여 총효과를 산출하였다(〈표 8〉 참조). 즉, 주부의 교육 수준과 연령은 각 0.01의 간접 효과가 있었으며 의생활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0.10의 직접 효과가 있었다. 남편의 교육 수준은 0.01의 간접 효과가 있었고 무작위형의 의사소통 양식은 간접효과0.03과 직접 효과 0.17을 합친 0.20의 총효과가 있었다. 또한 변화 지향형 의사 소통 양식은 0.35의 직접 효과가 있었다. 애정에 대한 의사소통도는 직접 효과 0.15와 간접 효과 0.06을 합친 0.21의 총효과가 있었고 소득과 결혼 지속년수는 각 0.02의 간접 효과가 있었으며 금전에 대한 의사소통 양식은 직접 효과 0.14와 간접 효과 0.05를 합친 0.19의 총효과를 나타내었다.

〈표 6〉 각 변인의 자기 상관 계수

	양식1	양식2	양식3	의	식	주	기능	체력	애정	금전	시간	공공 시설	결혼 만족
Fage	*** -0.22	*** -0.23	*** -0.20	-0.02	0.01	-0.02	-0.05	-0.02	-0.15	-0.18	-0.12	0.05	-0.19
Mage	*** -0.18	*** -0.18	*** -0.18	-0.01	-0.02	-0.05	-0.08	-0.05	** -0.15	*** -0.18	** -0.15	-0.02	** -0.16
Fedu.	*** 0.21	*** 0.28	** 0.16	** 0.16	** 0.13	** 0.16	** 0.16	** 0.13	*** 0.23	** 0.14	*** 0.17	-0.02	*** 0.24
Medu.	** 0.17	*** 0.21	* 0.13	0.07	* 0.10	** 0.14	** 0.14	0.06	*** 0.20	* 0.10	*** 0.17	-0.03	*** -0.22
FLC	*** -0.21	*** -0.23	** -0.16	-0.02	-0.03	-0.05	* -0.10	-0.06	*** -0.19	*** -0.21	*** -0.17	0.03	*** -0.21
INC.	0.09	* 0.12	0.05	0.01	0.03	-0.03	0.06	-0.03	0.05	-0.09	0.003	* -0.12	* 0.12
MAR.	*** -0.20	*** -0.20	*** -0.18	-0.04	-0.05	-0.04	* -0.11	-0.05	*** -0.21	*** -0.20	*** -0.17	0.01	*** -0.18
양식1		*** 0.67	*** 0.80	* 0.12	* 0.11	*** 0.29	*** 0.34	*** 0.26	*** 0.48	*** 0.26	*** 0.34	** 0.16	*** 0.64
양식2			*** 0.68	*** 0.25	*** 0.24	*** 0.40	*** 0.45	*** 0.46	*** 0.58	*** 0.36	*** 0.43	*** 0.20	*** 0.73
양식3				* 0.13	* 0.11	*** 0.30	*** 0.35	*** 0.30	*** 0.46	*** 0.27	*** 0.36	** 0.16	*** 0.62
의					*** 0.48	*** 0.40	*** 0.42	*** 0.41	*** 0.35	*** 0.32	*** 0.34	*** 0.29	*** 0.32
식						*** 0.49	*** 0.51	*** 0.44	*** 0.40	*** 0.32	*** 0.35	*** 0.37	*** 0.28
주							*** 0.49	*** 0.53	*** 0.48	*** 0.40	*** 0.46	*** 0.32	*** 0.42
기능								*** 0.65	*** 0.56	*** 0.46	*** 0.52	*** 0.40	*** 0.47
체력									*** 0.53	*** 0.51	*** 0.54	*** 0.40	*** 0.46
애정										*** 0.49	*** 0.59	*** 0.33	*** 0.60
금전											*** 0.50	*** 0.34	*** 0.44
시간												*** 0.39	*** 0.47
공공 시설													*** 0.29
결혼 만족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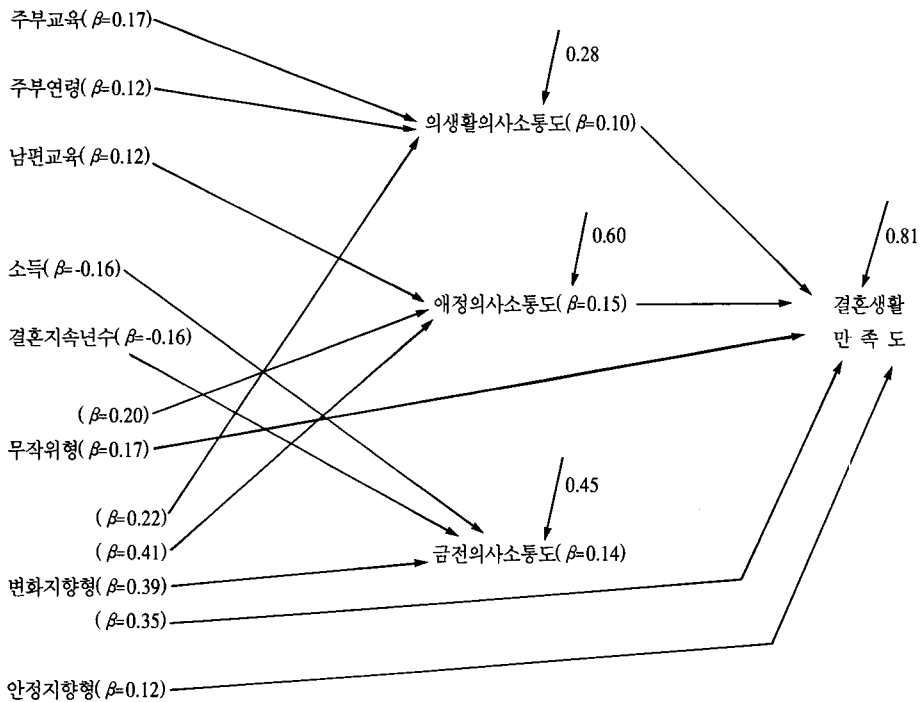
〈표 7〉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제 변인의 영향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value	F-value	Adj R ²	R ²	DW	VIF	상수
결혼생활 만족도	의생활	0.53	**0.10	***83.85	0.65	0.66	2.06	1.23	6.58
	애정	0.67	**0.15						
	금전	0.57	***0.14						
	무작위형	0.36	**0.17						
	변화지향형	0.70	***0.35						
	안정지향형	0.33	*0.12						
의생활 의사소통	주부연령	0.29	*0.12	***9.33	0.07	0.08	2.04	1.37	6.52
	주부학력	0.49	**0.17						
	변화지향형	0.09	***0.22						
애정 의사소통	남편학력	0.41	**0.12	***62.08	0.37	0.37	2.03	1.03	2.48
	무작위형	0.09	***0.20						
	변화지향	0.18	***0.41						
금전 의사소통	결혼지속년수	-0.43	**0.16	***27.92	0.20	0.21	1.93	1.03	7.23
	소 득	-0.30	**0.16						
	변화지향형	0.19	***0.39						

*P<.05 **P<.01 ***P<.001

〈표 8〉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변인의 인과적 및 비인과적 효과 및 총체적관계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총체적관계	비인과적효과
주부교육수준	-	0.01	0.01	0.24	-0.23
주부연령	-	0.01	0.01	-0.19	0.20
남편교육수준	-	0.01	0.01	0.22	-0.21
무작위형	0.17	0.03	0.20	0.64	-0.44
변화지향형	0.35	-	0.35	0.73	-0.38
안정지향형	0.12	-	0.12	0.62	-0.50
의생활의사소통	0.10	-	0.10	0.32	-0.22
애정의사소통	0.15	0.06	0.21	0.46	-0.25
금전의사소통	0.14	0.05	0.19	0.60	-0.41
소 득	-	0.02	0.02	0.12	-0.10
결혼지속년수	-	0.02	0.02	-0.18	0.20



〈그림 2〉 결혼생활만족도에 대한 경로분석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 체계에서 나타나는 의사 소통 양식과 가족간의 의사 소통도 및 결혼생활 만족도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중 부부연령, 부부학력, 결혼 지속년수, 가정생활주기, 자녀수, 소득에 따라 의사소통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의사 소통 양식은 의사소통도에 영향 변인이었다. 즉 대체로 가족체계 내에서 변화 지향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보일수록 의사소통도가 높다.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중 부부연령, 부부학력, 결혼 지속년수, 가정생활주기, 자녀수에 따라 결혼생활 만족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의사 소통 양식은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 변인이었다.

- 3) 의, 식, 주, 기능, 체력, 애정, 금전, 시간 및 공공시설에 대한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결혼생활 만족도도 높아진다.
- 4)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제 영향 변인은 의생활(β=0.10), 애정(β=0.15), 금전(β=0.14)에 대한 의사소통도와 무작위형(β=0.17), 변화 지향형(β=0.35), 안정 지향형(β=0.12)의 의사 소통 양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부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부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 지속년수가 짧은 가정과 무자녀나 자녀1명을 둔 가정 그리고 확립기의 가정이 의사소통도가 높았고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았고 그리고 의사 소통 양식은 결혼생활 만족도에 영향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가정 내의 의사 소통이

가정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시사해 주는 것이며 젊은 부부와 고학력의 부부 자녀수가 적고 결혼 생활 기간이 짧은 가정이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는 계획부터 부부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결혼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결혼 생활을 해 가면서 결혼초기때와 같이 부부 및 가족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결혼 생활을 만족하게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리라 본다. 또한 고학력 부부의 의사소통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부간에 지적 능력 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부부간의 의사소통 능력 개발과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등을 위해 가족 내의 잠재된 자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시 적소에 배분 및 활용할 수 있는 관리능력 및 창조성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양식중 대체로 변화 지향적 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양식이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더 원활히 되게 하였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부언하면 변화 지향적 체계에서는 개방적인 상호작용과 메시지의 일관성 및 명료함 그리고 솔직함이 나타날 수 있고 침투성있는 외부 경계와 융통적인 내부 경계를 나타내며 변화에 대해 반응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계에서는 의사소통이 더 원활히 이루어지고 가족 성원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며 의사소통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일관성 있고 명료하기 때문에 가족 성원간에 의미 전달이 용이하고 의사소통의 일지감 및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결혼생활 만족도도 증가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혼생활 만족도가 증가되는 것은 부부외의 다른 가족원에게도 좋은 환경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 되므로 가정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가족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므로서 서로 사랑하고 협동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부가 지적 향상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성인의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위한 사회적 인지지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도울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김선영(1989). 도시 저소득층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결혼 안정성간의 관계. 서울대 석사논문.
- 2) 김수연·김득성(1993). 부부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순환모델의 곡선성과 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권2호. p.30-39.
- 3) 김화자·윤종희(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권2호. p.155-170.
- 4) 박경자(1981). 부부상호간의 의사소통과 가정생활 행복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논문.
- 5) 박은주·김경신(1995).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유형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대한가정학회지 33권5호. p.27-38.
- 6) 송말희·이정우(1986).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권1호. p.33-47.
- 7) 송성자(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송진대 박사논문.
- 8) 이정순(1982).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일 연구-이해도와 일치도를 중심으로. 이대석사논문.
- 9) 이옥진(1982).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련된 가족 환경적 변인에 관한 일연구.서울대 석사논문.
- 10) 이재연·최영희(1990). 의사소통과 가족관계. 형성출판사.
- 11) 오경희(1995). 가정관리유형, 의사소통도 및 가사협조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권1호.
- 12)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권3호. p.156-169.
- 13) 임정빈 외 4인(1994). 가정관리학. 학지사.
- 14) 임철성(1995).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집문당.
- 15) 전귀연·최보가(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

- 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권 3호. p.157-173.
- 16) 전길량·김태현(1988). 자기개방과 부부적응에 관한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권3호. p. 209-224.
- 17) 전춘애·박성연(1993). 결혼만족도와 결혼 안정성간의 관계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권2호. p.81-96.
- 18) 정은미·김명자(1996).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권1호. p.47-64.
- 19) 최규련(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권1호. p. 61-84.
- 20) 최연실(1987).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21) Beaubien Sister Clare(1970). Adolescent-Parent Communication Styles. Penn. State University Ph. D.
- 22) Davidson, B.J., Balswick & C.Halverson(1983). Affective Self-disclosure & Marital Adjustment: A test of equity theory.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Vol45 No1 p.93-102.
- 23) Haukins,J.A.,C.Weisberg & D.W.Ray(1980). Spouses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 Preference,Perception,Behavior.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Vol38 p.585-592.
- 24) K.M.Galvin(1982).Family communication-cohesion & Change, Scott, Foresman & Co
- 25) Norton,R(1983).Meaning Marital Quality: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45(2) p.141-151.
- 26) Peter R.Monge(1972). The study of Human Communication from Three Systems Paradigms. Michigan State University Ph.D.
- 27) Robert A.Lewis & Graham B.Spanier(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B.Burn, R.Hill, F.I.Nye & I.L.Reiss (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The Free Press.
- 28) R.O.Blood, D.M.Wolfe(1960). *Husband & Wives*. New York: Free Press
- 29) Roach,J., Frazier & Bowden(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Vol43 No3.
- 30) Stephen W.Littlejohn(1982). An Overview of contributions to human communication theory from other disciplines, in Frank E.X.Dance(ed), *Human communication theory*, Haper & Row, Publishers, Inc, New York p.244.
- 31) Virginia Satir(1976). *Peoplemaking* Hazelden Foundation, Center city, Minn in Gail E.M & Michele T.M.(ed), *The Dynamics of Human Communication: A Laboratory Approach*, McGraw-Hill Inc, 1985.